



카자흐스탄 Kazakhstan



I. 투자환경위험 평가 결과

투자환경위험수준

보통



플러스 경제성장 지속,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전환 전망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외채상환부담률(D.S.R.)이 30%대를 기록하는 등 외채관련 지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통'으로 평가

평가분야



투자동향 10% 	국가위험도 40% 	투자여건 50%
------------------------	-------------------------	------------------------

평점기준



평점산출내역



분야별 평점(위험수준)



투자동향(10%)		요주의	국가위험도(40%)		주의	투자여건(50%)		보통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50.0점	62.0점	68.0점	52.5점	51.5점	52.0점	42.4점	40.2점	43.9점

종합평점(위험수준)

주의		보통		보통	
2017년	47.1점	2018년	46.9점	2019년	49.5점



II. 주요 시장 동향 · 제도 변화

<p>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2019년 6월 상원의장을 역임한 토카예프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선출 • 나자르바예프 전임 대통령은 여당 대표 등의 지위를 맡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의 명칭 변경과 선거 공정성 등의 문제로 반정부 시위 발생
<p>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3% 이상 지속 : IMF 4.1%('17) → 4.1%('18) → 3.2%('19^f) • 재정수지(GDP 대비 -4.4%('17) → 0.5%('18) → 1.5%('19^f)) 및 경상수지(GDP 대비 -3.1%('17) → 0.0%('18) → 0.5%('19^f)) 모두 흑자 전망 • 높은 D.S.R. 지속 : 33.9%('17) → 32.9%('18) → 32.1%('19)
<p>1.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 규제)</p>	<p>유지</p> <p>'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을 통해 ICT 및 제조업 발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디지털화 등을 목표로 2022년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ICT 활용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수출 지향 IT 기업 육성 추진 <p>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US\$85.1억('17) → US\$46.7억('18) → US\$38.2억('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기 침체,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액 감소 <p>카자흐스탄 전역에 부문별 특성에 따른 경제특구 지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의 경제특구가 있으며, 중점 부문에 따라 산업, 서비스, 기술 특구 및 혼합 특구로 구분. 아스타나 신도시, PIT, 아티라우, 호르고스 등이 대표적인 경제특구이며,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호르고스 특구가 발전할 전망 <p>2019~20년 주요 8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 대상은 카즈무나이가스(국영석유가스), 삼룩에너지(국영에너지), 카작데미르줄(국영 철도기업), 카즈포스트(국영우편기업) 등
<p>2.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p>	<p>유지</p> <p>새로운 외환관리 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7월부터 카자흐스탄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계 법인은 '거주 기업'으로 간주되어 카자흐스탄 기업과 텡게화 거래 의무 <p>환율은 상승 추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텡게화 환율은 2019년 6월 미 달러당 382.6텡게를 기록하여, 지난해의 미 달러당 336.9텡게에서 약 14% 상승
<p>3. 조세제도 (법인세)</p>	<p>유지</p> <p>세수 확충을 위해 2019년 조세사면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1월 정부는 일정기한 내 연체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들에게 벌금 면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정책은 세수확보와 함께 향후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목적 <p>법인세율 20%, 개인소득세율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배당소득과 자본소득, 이자소득 등에 15%의 소득세 부과



4.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유지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에 대한 '신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확대 시행

- 2015년부터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 구매시 정부 보조금으로 낮은 이자율의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존의 3천대에서 1만 5천대로 확대 시행

2018년 말 기준 약 607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 보유

- 정부 재정 및 산업 발전 등에 지원
 - 에너지 수출 소득으로 조성되는 국부펀드 규모는 2014년 이후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이후에는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 국부펀드 규모(억 달러): 732('14) → 635('15) → 612('16) → 583('17) → 607('18)

2018년 출범한 국제금융센터(AIFC)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금융허브 추진

- 정부는 수도인 누르술탄을 유라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18년 7월 국제금융센터(AIFC)를 출범
 - AIFC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모델로 2015년부터 설립을 추진하여 2018년 설립되었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추진하고 국제금융시장과의 협력을 모색

5.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해고/ 노사관리)

유지

여성 노동인력의 퇴직연령 상향 조정

- 현재 남성의 퇴직연령은 63세, 여성의 퇴직연령은 58.5세이며, 여성의 퇴직연령은 향후 10년 동안(2027년까지) 매년 6개월씩 늘려갈 계획
- 이에 따르면 2019년에는 59세, 2020년에는 59.5세, 2027년에는 63세로 남성과 일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임금수준 상승 추세

- 2018년의 평균 임금은 51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5% 상승하였으며, 2019년 최저임금은 113.5달러로 전년도의 75.6달러에 비해 1.5배 증가

실업률은 4.9% 수준 유지

-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실업률은 2013년 5.2%에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

6.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유지

러시아 경제 및 서방의 대러 제재의 영향

-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 경제의 둔화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 둔화와 소비수요 감소 등으로 대러시아 수출 부진 가능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경제협력 지속

- 카자흐스탄 포함 5개국으로 구성된 EAEU의 역내외 경제 관계 확대
 - 역내관세 철폐와 역외관세 단일화를 추진하며, 대외적으로 2016년 10월 베트남과 FTA 발효, 2018년 이란과 FTA 임시협정 체결, 싱가포르, 이집트, 인도 등과 FTA 체결 논의

(붙임) 평가 분야별 세부내용



I. 외국인투자 동향

1. 직접투자 실적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실적



투자누계

투자건수 누계

314건



투자총액 누계

2,621백만 달러



주) 2005~2017년은 해당연도 실적, 투자누계는 2018년 3월말 기준 전체 누계 실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 실적

대 카자흐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II. 국가위험도 평가

1. 국가신용등급

구분	2017	2018	2019.8
한국수출입은행	C3	C3	C2
OECD	6	6	5
Moody's	Baa3	Baa3	Baa3
Fitch	BBB	BBB	BBB

2. 단기유동성위험

구분	총외채/총수출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개월) 	외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ECA거래실적 (OECD)(%)
OECD권고	120% 이하	3개월 이상	15% 이하	100% 이하	-
2017	297.7	3.4	33.9	42.7	58.2*
2018	256.4	2.7	32.9	46.8	65.1**

자료) OECD
 * 2017년 9월 기준
 ** 2018년 9월 기준

3. 단기유동성위험 진단점수

구분	수용위험 (계약실행 가능성)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2018.5	3.0	3.0	2.5
2019.5	2.5	2.5	2.5

주) 1. PRS, ICRG 기준
 2. 진단점수는 0~4점(0.5단위) 체계로 0은 '매우 높은 위험', 4점은 '매우 낮은 위험'을 의미함



Ⅲ. 투자여건 평가

1. 기업경영여건

구분	순위	
	2017	2018
1 창업(Starting a Business)	41/190	36/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52/190	35/190
3 전력수급(Getting Electricity)	70/190	76/190
4 재산등록(Registering Property)	17/190	18/190
5 신용획득(Getting Credit)	77/190	60/190
6 소액투자자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190	1/190
7 조세납부(Paying Taxes)	50/190	56/190
8 대외무역(Trading Across Borders)	123/190	102/190
9 계약실행(Enforcing Contracts)	6/190	4/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39/190	37/190
종합순위	36/190	28/190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 글로벌경쟁력 지수

구분	순위		구분	순위	
	2017			2018	
1 제도(정책, 시스템)	60/137		1 제도(정책, 시스템)	61/140	
2 인프라스트럭처	68/137		2 인프라스트럭처	69/140	
3 거시경제 안정성	98/137		3 ICT 도입	44/140	
4 보건·교육	59/137		4 거시경제 안정성	62/140	
5 인력관리(연수)	56/137		5 보건	97/140	
6 상품시장 효율성	72/137		6 기술(교육)	57/140	
7 노동시장 효율성	35/137		7 상품시장	57/140	
8 금융시장 발전수준	114/137		8 노동시장	30/140	
9 기술수준	52/137		9 금융제도	100/140	
10 시장규모	43/137		10 시장규모	45/140	
11 기업 발전수준	108/137		11 기업 역동성	37/140	
12 R&D 혁신	84/137		12 혁신 역량	87/140	
종합순위	57/137		종합순위	59/140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3. 시장동향·제도 변화

정성평가

종전평가 대비	평가				
	매우개선	개선	유지	악화	매우악화
투자정책			✓		
외환제도			✓		
조세제도			✓		
금융제도			✓		
노동제도			✓		
무역제도			✓		

주) 종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

정량평가

환율(미달러대비)



물가상승률



2018.6	2019.6	증감률
336.92	382.57	13.6%

2018.6	2019.6
5.9%	5.4%

주) 해당월 평균 환율

주) 전년 동월 대비 변동